

쇼경기 출전 6인... 빛나는 '개근상'



키움 송성문이 지난달 15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kt wiz와 홈경기에서 1-2로 끌려가던 5회 2사 후 상대 선발 고영표로부터 우측 펜스를 넘어가는 동점 홈런을 뽑아냈다. 올 시즌 20번째이다. 키움 히어로즈

키움 송성문-삼성 다이아-LG 박해민 롯데레이에스-한화노시환-NC김주원 10구단 체제 2015년 이후 최다 타이 박-레이에스는 2년 연속 개근 도전 성과와 끈기 상징... 철인 '명예훈장'

프로야구 전 경기 출전 기록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한 시즌 144경기에 모 두 출전했다는 것은 시즌 내내 큰 부상과 슬럼프 없이 꾸준히 활약 했다는 증거다.



전 경기 출전 기록은 희소하다. 보통 1년 에 모든 경기에 나서는 선수는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에서 한 시즌 10 명 이상의 개근 선수가 나온 건 1996년(10 명) 단 한번뿐이다.

10구단 체제로 팀당 144경기를 치르기 시작한 2015년 이후로는 6명이 최다 기록 이다.

2015년과 2016년, 2018년, 2021년에 각각 6명의 전 경기 출전 선수가 나왔다.

올해 KBO리그에서도 6명의 선수가 개 근을 노린다.

키움 히어로즈의 간판타자 송성문(139 경기), 삼성 라이온즈의 외국인 타자 르 윈 다이아, LG 트윈스 외야수 박해민, 롯 데 자이언츠 교타자 빅터 레이에스, 한화 이글스 내야수 노시환(이상 137경기), NC 다이노스 내야수 김주원(136경기)이 소속 팀이 치른 모든 경기에 출전했다.

이들이 올 시즌 남은 경기에 모두 출전하 면 2021년 이후 4년 만에 6명의 전 경기 출 전 선수가 나온다.

박해민과 레이에스는 지난 시즌에 이어 2년 연속 전 경기 출전 기록에 도전한다.

특히 박해민은 삼성에서 뛰던 2021년 10 월13일부터 연속 출전 기록을 이어가고 있 다. 현역 최다 기록이다.

그가 올 시즌 남은 7경기에 모두 출전하 면 연속 출전 기록을 589경기로 늘린다.

노시환과 레이에스는 올 시즌 모든 경기 에 선발로 출전했고, 특히 레이에스는 지 난해에도 전 경기에 선발로 나섰다.

투수 중에선 롯데 좌완 정현수가 79경기 에 나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이다.

2위 LG 김진성(74경기)과 격차가 커 투 수 최다 출전 1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현수는 역대 12번째 KBO리그 한 시 즌 80경기 출전 기록에도 단 한 경기를 남 겨두고 있다.

KBO리그 역대 한 시즌 최다 경기 출전 기록은 2004년 LG 류택현, 2008년 SK 와 이번스(현 SSG 랜더스) 정우람이 기록한 85경기다.

투수 최다 등판 기록은 타자 전 경기 출 전 기록과는 의미가 살짝 다르다.

일부 투수에게 하중이 쏠렸다는 의미가 기 때문이다.

무리한 등판 일정은 부상 위험을 높이고 선수 생명을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2009년 이후 한 시즌 80경기 이상 등판한 투수는 손에 꼽힌다.

2009년 이후 80경기 이상 등판한 선수는 2015년 NC 다이노스 임정호, 2023년 김진 성(이상 80경기)뿐이다.

정현수가 올 시즌 남은 기간 두 경기 이 상 등판하면 2009년 이후 한 시즌 최다 경 기 출전 기록을 쓴다.

한 시즌 80경기 이상 등판 기록은 30개 팀이 162경기씩 치르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도 많지 않다.

2021년 브라이언 쇼(당시 클리블랜드 가 디언스)가 81경기, 타일러 로저스(당시 샌 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80경기에 등판한 것이 마지막 기록이다.

한편 2025 KBO리그 탈삼진 2위는 역대 단일시즌 2위 기록을 세우고도 개인 타이 틀을 수상하지 못했다.

코디 폰세(한화 이글스)와 드루 앤더슨 (SSG 랜더스)은 이미 역대 KBO리그 탈 삼진 1, 2위 기록 달성을 확정했다.

한 번 또는 두 번의 등판에서 역대 1위와 2위, 2025시즌 탈삼진 1위와 2위로 희비가 엇갈린다.

앤더슨은 22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 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홈 경기에 선발 등 관해 4¼이닝(6피안타 4실점 3자책)만 던 지고도 삼진 7개를 잡았다.

올 시즌 앤더슨의 탈삼진은 240개로 늘 었다.

삼진 242개를 잡은 폰세와 격차는 2개로 줄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2025 중국 마스터스 시상대에 오른 안세영.

신화통신=연합뉴스

우승 7회 상금 8억 안세영 천하

커리어통산 28억 원... 김원호·서승재 올 상금왕 2위

올해에만 7개의 국제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최강 안 세영(삼성생명)이 상금으로 8억 원에 가 까운 보너스를 챙겼다.

안세영은 21일 중국 선전의 선전 아 레나에서 끝난 2025 세계배드민턴연맹 (BWF) 월드투어 슈퍼 750 중국 마스터 스에서 우승을 거두며 대회 2연패를 달 성했다.

총 상금 125만 달러(약 17억4000만 원) 가 걸린 이 대회에서 여자단식을 제패한 안세영은 BWF가 규정한 슈퍼 750 대회 상금 분배 기준에 따라 전체 상금의 7% 인 8만7500달러(1억2000만 원)를 받았다.

올해 안세영은 10번의 국제 대회에 출 전해 7번 우승했고, 3위에 3번 올랐다.

3개의 슈퍼 1000 시리즈(말레이시아오 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 3개의 슈 퍼 750 시리즈(인도오픈, 일본오픈, 중국 오픈)와 슈퍼 300 대회 오레앙 마스터 스에서 정상을 밟았다.

올해 안세영이 각종 대회 통해 벌어들인 상금은 57만1000달러(7억9500만 원)에 달한다.

BWF에 따르면 이어서 안세영의 커 리어 통산 상금은 2025년5291달러(28억 6500만 원)로 늘어났다.

한국 남자 복식의 '황금 계보'를 이어 갈 주자로 주목받는 세계랭킹 1위 김원 호, 서승재도 적잖은 상금을 챙겼다.

1월 처음 복식 조를 꾸린 이 둘은 안세 영과 함께 이번 중국 마스터스에서 정상 에 오르며 올해 7번째 국제 대회 우승을 자축했다.

3개의 슈 퍼 750 시리즈(인도오픈, 일본오픈, 중국 오픈)와 슈퍼 300 대회 오레앙 마스터 스에서 정상을 밟았다.

올해 안세영이 각종 대회 통해 벌어들인 상금은 57만1000달러(7억9500만 원)에 달한다.

BWF에 따르면 이어서 안세영의 커 리어 통산 상금은 2025년5291달러(28억 6500만 원)로 늘어났다.

한국 남자 복식의 '황금 계보'를 이어 갈 주자로 주목받는 세계랭킹 1위 김원 호, 서승재도 적잖은 상금을 챙겼다.

1월 처음 복식 조를 꾸린 이 둘은 안세 영과 함께 이번 중국 마스터스에서 정상 에 오르며 올해 7번째 국제 대회 우승을 자축했다.

최경주 4개월 만의 출격... 최고령 우승 향해 '샷'

한국프로골프의 살아있는 전설 최 경주(55-사진)가 4개월 만에 한국프로 골프(KPGA) 투어 무대에 선다.

최경주는 25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여주시 페럼클럽(파7·7330야드)에서 열리는 KPGA 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총 상금 12억5000만 원) 에 출전한다.

대회 호스트인 최경주는 5월에 열린 KPGA SK텔레콤 오픈에 이어 4개월 만 에 국내 후배 선수들과 경쟁한다.

지난해 SK텔레콤 오픈에서 KPGA 투어 최고령 우승(만 54세) 기록을 세 운 최경주는 이번 대회에서 기록 경신 에 도전한다.

그는 올해 SK텔레콤 오픈에서 기상 약화로 이틀 동안 3라운드 54홀을 도 는 강행군 속에 최종 합계 3연타과 201 티로 공동 33위를 기록했고, 이후 미

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투어 일 정을 소화했다.

22일에 끝난 퓨어 인슈어런스 챔피 언십에선 1오버파 217타로 공동 38위 에 올랐다.

최경주는 이번 대회 세 번째 우승을 노린다. 그는 2011년과 2012년 이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우승자인 이수민은 타이틀 방어 에 도전한다. 이수민 은 2019년과 2024년 현대해상 최경주 인 비테이셔널에서 우

승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옷이 오르지 않아 드셔본 분은 꼭 다시찾게되는



콜라겐이 풍부한 옷이랑 닭발 진액골드

닭발의 콜라겐과 토종 참우트의 폴리보노이드로 제대로된 몸보신하세요!

50% 특별할인



옷이랑 대표이사 김종규

토종 참우트 전문브랜드 옷이랑 제품중 옷이 랑 닭발진액골드를 출시하였습니다. 콜라 겐이 풍부해서 모든 사람들이 즐겨 먹는 닭 발과 토종 참우트가 만나서 새로운 보양식으 로 탄생했습니다. 닭발에는 콜라겐도 많이 함유되어 있고 단백질 및 몸에 이로운 성분 이 함유되어 있어 인기가 높은 식품입니다. 몸에 좋은 닭발을 많이 섭취하기에는 무리 가 있지요 구하기는 쉽지만 조리하기도 까 다롭지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닭 발을 진액으로 제조하여 쉽게 드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제거, 닭발속 의 영양분에 토종 참우트를 더하여 여름 철 지

친 몸을 보양할 수 있는 몸보신 제품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콜라겐 때문에 닭발을 많 이 드시는데요 맵고 짜서 많이 드시길 못합 니다. 이럴 땐 옷이랑 닭발진액 골드를 드시 면 됩니다. 옷이 오르지 않는 참우트진액과 닭 발 속의 콜라겐을 섭취하기 편해지기 때문 입니다. 옷이랑 닭발진액골드는 무독화 특 허기술로 닭발과 토종참우트, 오갈피나무, 건 조쇠뿔, 구기자 나무열매, 생강, 삼주 뿌리 줄기, 감초 등을 넣어 부담없음이 드실수 있 습니다. 닭발의 콜라겐과 토종 참우트의 폴리 보노이드를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루시율이 없어 옷이 타지 않는 토종참우트 우루시율은 옷을 오래게 하는 성분입니다. 옷 이랑 참우트에는 우루시율이 단 한방울도 없어 옷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품질을 위한 위생적인 최첨단 설비

옷이랑 제품들은 제천 한방엑스포 공원에 위치한 제천 바이오밸리의 생산공장에서 제조합니다. 재료의 입고 부터 선별 및 가공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설비에서 생산 됩니다. 완벽한 청정시설로 일체의 위해요소의 혼입 막 아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토종 참우트와 닭발의 2배 농축진액

- 1박스(80mlX30포) 456,000원 - 78,000원
- 2박스(60포) 312,000원 - 138,000원
- 3박스(90포) 468,000원 - 198,000원

행사기간 : 2025년 9월 30일 까지

주문전화 / 02-458-0821

농협 301-0253-2226-11 예금주 (주)옷이랑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능